

11월7일(월)/히2:1~4

제목: 기적은 전도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된 계시를 어거거나 따르지 않아도 응분의 징벌을 받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계시를 소홀히 한다면 징벌을 피할 수 없다(2절). 히브리서 기자는 계시의 전달과정을 알려주었다. 계시의 전달자는 천사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이다. 제일 처음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다. 계시는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소리이다(3절). 그리고 이 계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었다(3절).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떻게 인간에게 확증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아드리고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일으킨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이다(4절). 이 계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이 계시의 진정성에 대해 긴가 민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시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은 신비스러운 능력과 표적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강박함을 아시고 목적에 따라 기이한 기적을 허락하셨다. 구원의 계시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가 기이한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적을 보면 받아드린다.

11월8일(화)/히2:5~18(1)

제목: 이상적인 인간상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지위를 주셨다(7~8절). 그러나 차질이 생겼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8절)라는 말은 인간은 죄 때문에 아직 그런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죄로 그 인생을 얼룩지게 함으로 왕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했다. 인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물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9~10절).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가 없어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그는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

11월9일(수)/히2:5~18(2)

제목: 예수님의 동정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이시다(10절). 창시자라는 말은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초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인류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셨다(10절).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인간의 고난과 죽음까지 당해보셨다(14~15절). 예수님은 천사를 도우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인간을 돕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인간처럼 되셨다(16~17절). 예수님은 왜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 인간과 참다운 일체가 되기 위해서이다. 인간과의 일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다. 고독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남의 고독을 이해할 수 없다. 신경이 무딘 자가 남의 신경쇠약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현장을 답사하시고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에 슬퍼하며,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말이다.

11월10일(목)/히3:1~19(1)

제목: 일을 매듭짓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 라고 한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대사라는 것이다. 대사의 소리는 그를 파견한 왕 또는 국가의 소리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사로서 그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1절).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라고 한다(1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중재자는 하나님도 알아야 하고 사람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양자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인간들 편에서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인간에게 말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은 이 중재자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도록 중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 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매일 매일 중재자 예수님에게 아뢰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일을 성사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늘 소상히 보고해야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동하시면 우리의 일은 매듭지게 되는 것이다.

11월11일(금)/히3:1~19 (2)

제목: 나는 돌맹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증명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실히 일했듯이 예수님도 그 집에서 충실히 일하셨다(2절). 그런데 모세는 주인의 ‘종’ 으로써 그 집에서 충실했지만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 로 충실했다(5~6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창조주이시며 그 집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자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완전히 대비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이라고 하였다(6절).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그 집을 구성하는 ‘돌맹이’ 이라는 뜻이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집을 형성하는 돌맹이들이다. 만약에 집을 구성하는 돌맹이들이 약해지거나 혹은 빠져 나가 이탈하면 건물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집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돌맹이인 ‘내’ 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당신의 집을 세울 수 없으시다.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